

제 862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의 결과

『2007년 HLM 및 개발글로벌 포럼 의제 검토, 나이지리아 부채
환매의 DAC 통계 포함 문제, 개발원조 언타이드 확대』

제 862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의가 2007.2.15(목) Manning 의장 주재로 개최되어 2007년 고위급 회의(HLM) 의제 검토, 나이지리아 부채 환매의 DAC 통계 포함 문제, 개발원조 언타이드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였음.

I. 핵심요지

1. 2007. 4월 개최 고위급회의(HLM : 개발각료회의) 의제 및 제1차 개발글로벌포럼 전체회의 의제가 대체로 확정되었으며(의제 별첨), 2008. 9월 가나 아크라 개최 고위급포럼(HLF : 각료급 포럼)의 준비 절차가 개시됨.

2. 수원국에 의한 부채환매의 ODA 적격성과 관련, standalone 환매의 경우 거래의 목적을 상업적으로 간주하여 ODA 포함을 배제하기로 대체적

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종합적 부채 탕감 조치로서의 환매가 ODA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발목적에 해당하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함.

3. 2001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언타잉 권고와 관련, 회원국의 이행 상황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개발원조 언타이드 확대를 위해 언타잉 권고의 적용범위를 non-LDC 고채무빈곤국(HIPCs) 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개발원조 조달의 현지화 촉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함.

4. 인권과 개발에 관한 행동계획 정책문서가 채택되었으며, 새로 마련한 DAC 동료검토 내용가이드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함.

II. 관찰 및 평가

1. 2007년 고위급회의 및 개발글로벌포럼의 의제가 확정되고, 특히 우리 대표의 글로벌포럼 패널 참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 의제에 대한 세부 입장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개발원조에 대한 언타잉의 적용범위의 확대 추세, 수원국 조달 시스템의 활용 촉진 움직임 등도 개발원조의 중요한 정책적 변화이므로 우리의 ODA 정책의 발전 및 장차 DAC가입에 대비하여 이러한 논의의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II. 상세 회의 결과

1. 2007년도 고위급 회의(HLM) 의제 검토

가. 2007 고위급 회의(HLM) 의제(안) :

DCD/DAC(2007)7/REV1

※ 1.16 DAC 회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으로 회원국들은 동 의제(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4.3(화) 수석대표 만찬 : 이민과 개발 및 원조의 역할

■ 4.4(수) 고위급회의 본회의

- 수석대표 조찬 : Non-OECD 공여국과 대화

※ Non-DAC 공여국의 개발글로벌포럼 참석 정도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대안으로 DAC의장과 Non-DAC 공여국 대표와의 대화방안도 고려

- 오전 세션 : 가버넌스(국가 취약성, 치안, 부패)

- 수석대표 오찬 : 원조 구조 - 유엔개혁이 양자 공여국에 주는 의미 (Kemal Davis UNDP 사무총장 연설)

- 오후 세션 : 파리 선언 아젠다의 정치적 과제, 치안업무의 ODA 포함 문제, DAC 의장 선출절차

■ 사무국은 HLM 개최 직전에 개최되는 개발 글로벌 포럼 전체회의의 의제 [DCD/DAC/DEV /A(2007)2]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함.

나. 이민과 개발 및 원조의 역할 :

DCD/DAC(2007)13

1) 사무국 토의문서(Issue Paper)의 주요내용

■ 이민자의 본국 송금문제 및 개도국 이민자의 기술 숙련도 문제 등 이민과 개발의 연관성이 유엔 및 OECD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회원국간 혁신적인 정책과 현실적 경험을 공유 필요

- 이민과 개발의 효과적인 관리, 이민 송출국과 접수국 공히 이민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방안의 강구, 이민자 국내송금비용 감소 및 송금 안정성 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 HLM에서 주요 토의 사항

- 정부부처 및 기관간 이민문제 토의시 개발문제 논의 여부
- 일부 OECD 국가가 학업을 마친 외국인 학생에게 체류기회를 부여하는 사례 증가에 대한 의견
-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개도국의 번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이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경험
- 개발원조 사업에 해외이민 동포를 참여시킨 구체적인 경험

2) 토의 내용

- 다수 회원국들은 개발원조기관의 역할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민자 문제가 다수의 정부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coherence)이 중요하며, 이민문제가 개도국의 반곤감소 및 발전전략과 연계되도록 하는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개발센터측은 이민과 개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금년 6,7월경에 발간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의장은 사무국에 이민과 개발 관련 통계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함.

다. 의회 및 국민에 대한 파리선언의 홍보 : DCD/DAC(2007)16

1) 사무국 토의문서(Issue Paper)의 주요내용

- 의회와 국민에 대한 홍보는 파리선언 이행의 정치적 과제로서 일부 회원국은 의회에 파리선언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시민사회기구(CSOs)와 특별협의를 가지기도 함.

- 2007.1월 시민사회와 원조효과성에 관한 자문그룹이 설립되어 2008.9월 아크라 제3차 고위급 포럼 준비를 위해 시민사회기구와 협의 진행 예정

■ HLM에서 주요 토의 사항

- 수원국 의회가 파리선언상의 파트너십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방안
- 정부와 다자기관이 파리선언상의 약속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공여국 의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
- 원조효과성에 관한 작업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확산 시키는 방안
- 국내 시민사회기구들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2) 토의 내용

- 일부 회원국은 의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홍보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HLM에서 토의될 질문을 주제에 부합하게 조정할 것을 주문함.

조의 구조와 이행, 분야별 및 수평적 이슈 논의, 여타 중소득국가의 원조효과성 증진 및 시민사회기구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회의결과 문서로는 Chair's Summary가 여의치 않을 경우 'Accra Agenda for Action'을 대안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함.

라. 2008 아크라 고위급 포럼(HLF-3) 개요 : DCD/DAC(2007)17

1) 사무국 개념문서(Concept Paper)의 주요내용

- 제1차 로마회의, 제2차 파리회의에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3차 고위급 포럼(각료급회의)이 2008년 9월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될 예정임.
 - 사무국은 동 HLF-3 준비를 위해 세계은행이 작성한 개념문서 초안과 1.18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의 결과를 종합하여 배경문서로 제시
 - 동 개념문서는 2007.4월 DAC 고위급회의(HLM)에 제출되어, ① 제3차 HLF 회의에서 달성해야 하는 사항, ② 2010년 파리선언의 목표 달성 이후 2011년에 추가적인 HLF 개최를 공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제3차 고위급 포럼은 2005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파리선언의 이행상황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측은 주요 토의의제로서 파리선언의 이행상황, 원

2) 주요 토의 내용

- 미국, 벨기에,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이 동 문서를 3.7-9 개최되는 원조효과작업반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개념문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없었으나, 일부 회원국은 제3차 고위급 포럼이 파리선언의 이행점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파리선언과 같은 별도의 선언(Declaration)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마. DAC 의장 선출 절차 검토 : DCD/CHAIR(2007)4

- 지난 1.16 DAC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장이 제시한 DAC 의장 선출 절차에 대해 미국은 paragraph 3의 'veto'를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함.
- 의장은 여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최소한의 문안 수정후 합의토록 하고 HLM에서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함.

2. 나이지리아 부채환매의 ODA 적격성 문제 : DCD/DAC(2007)17

가. 논의 경위

- 2005년도 파리클럽의 나이지리아 부채탕감 조치와 관련, 2006년의 나이지리아 부채환매 (할인액 약 31억불)의 ODA 적격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바, 지난 1.25 비공식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standalone 환매의 ODA 통계 배제 및 종합적 부채탕감 조치로서의 환매에 대한 ODA 적격 여부 지침 문안이 논의되었고, 동회의 논의 결과를 기초로 사무국은 아래 문안[DCD/DAC(2007)12]을 절충안으로 제안함.

나. 새로운 지침(안)의 주요내용

- standalone 환매의 ODA 통계 배제
 - 부채환매에 관한 현재의 유일한 지침인 ‘Handbook for Reporting Debt Reorganization on the DAC Questionnaire [DCD/DAC(2000)16, paragraph 68]은 공여국의 직접 및 제3자로부터의 환매에 대한 재정지원 경우만을 다루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여국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이루어진 수원국의 환매의 경우에 대해 다음 지침을 추가토록 함.

“수원국이 공적채권자로부터 액면가 이하로 직접 부채를 환매할 때, standalone 환매일 경우 동 거래의 목적이 상업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액면가와 지불한 가격의 차액은 OOF(other official flows)로서 보고함. standalone 환매라 함은 채무국의 요청에 따라 파리클럽이 합의한 framework 내에서 1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자발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오직 파리클럽에서 합의된 부채운용임.”

- 종합적 부채 탕감 조치로서의 환매에 대한 지침
 - 현재 DAC 지침 [DCD/DAC(2000)16, paragraph 9]은 부채탕감이 수원국의 개발과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ODA로 보고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발과 복지를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부채 해결의 패키지인 환매에 대해 다음 지침을 추가토록 함.

“환매가 단일 협정상의 부채해결 패키지의 일부분일 경우 통계 보고자는 전체 패키지의 주목적이 채무국의 개발과 복지를 위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환매가 전체 패키지의 절반 이하일 것, 협정상 빈곤감소 및 여타 개발 목적 명시, 빈곤감소를 위해 채무국이 부채 상환능력 및 공공지출 증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됨.

환매가 단일협정의 종합적 부채해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부채탕감과 같이 그 목적이 개발을 위한 것인 경우, 액면가와 지불한 가격의 차액을 ODA로 보고하며, 이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 OOF로 보고토록 함.”

다. 2006년도 나이지리아 부채환매의 ODA 통계(안)

- 상기와 같은 새로운 통계 지침에 따라 2006년 나이지리아 부채환매 중 ODA 적격인 국별 환매 규모가 제시되었으며, 새로운 통계지침이 최종 합의될 경우 2007.3월 집계될 회원국의 잠정 ODA 통계에 포함될 예정임.
- ODA에 포함될 나이지리아 부채환매 총액은 26.43억불이며, 영국 7.9억불, 프랑스 5.98억불, 독일 5.15억불, 일본 3.47억불 순임.

라. 주요 토의내용

- 회원국들은 standalone 환매의 경우 거래의 목적이 상업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ODA 통계 포함을 배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함.
- 독일은 standalone 환매의 경우라 할지라도 개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나, consensus에 동참하겠다고 함.

■ 종합적 부채탕감 조치로서의 환매의 ODA 포함과 관련,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의 그룹은 사무국의 지침 초안이 개발목적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그룹은 개발 목적을 명시할 것을 주장함.

- 일본, 독일, 네덜란드는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무국 문안에 지지를 표명함(미국, 오지리, 스위스, 이태리, 덴마크).
- 투명성을 위해 나이지리아 부채환매의 ODA 포함분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2006년 ODA 통계표에 포함시키는데 대해서도 의견이 양분됨.

■ 이에 따라 사무국은 양대 그룹의 입장을 절충한 새로운 수정문안(별첨)을 제시하였으며, 의장은 회원국들이 2주내에 자국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함.

3. 인권과 개발에 관한 정책문서 : DCD/DAC(2007)15

가. 사무국은 지난 1.18 DAC 특별 협의에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인권과 개발에 관한 행동계획’ (Action-oriented Policy Paper o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함.

- 동 정책문서는 최근의 인권과 개발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공여국의 경험 등을 DAC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발과정에서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10개 원칙을 제시
- 또한 DAC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행동계획으로 ① 10개 원칙의 사용 유도, ② 인권담당 부서와 개발담당부서 간 대화 및 협조 촉진, ③ 인권 평가 및 지표의 강화에 있어 전문성의 원천으로서 역할 수행 등 3개를 제시

나. 회원국들은 동 인권과 개발에 관한 정책문서를 공식 채택함.

- 다만, 그리스가 동 정책문서 paragraph 19의 'minorities' 표현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을 문장 중간에 추가함.

4. 원조의 언타이드 문제

가. 2001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언타잉 권고 이행에 관한 2007년 보고서 : DCD/DAC(2007)11

1) 2001년 언타잉 권고 이행상황 검토

- 회원국의 언타잉 권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권고상의 적용범위를 이행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원조의 언타잉을 하고 있다고 평가

- 호주 외교부는 2006.4월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전 해외원조 프로그램의 언타이드를 발표
- EC는 2005년 EU상 호 주 의 (EU reciprocity), 즉 2개의 대외원조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LDCs에 대한 원조, 기술원조 등 전문성 원조 및 식량원조는 전체를 언타이드로 하고, 그 외의 EC원조에 대해서는 여타 공여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함.
- 덴마크만이 LDC에 대한 일부 원조에 대해 타이드 원조로 제공

■ 추가적인 언타잉 조치

- 2005년 SLM에서 적용 thresholds의 폐지를 합의함에 따라 2006. 7.1 부로 발효
- DAC은 2006년 SLM에서 논의에 따라 수원국의 조달절차 이용 증진을 위한 제안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

2) 언타잉의 향후 추진 방향

- 언타잉 권고의 적용범위를 non-LDC HIPCs 까지 확대
- OLICs, 식량원조 및 기술협력 부분에 대한 언타잉 추진

- 조달의 현지화 촉진 : ① 공여국의 개도국 조달시스템 이용 촉진, ② 현지 및 지역 조달 촉진

나. 2001년 언타잉 권고의 적용범위를 최빈개도국은 아니나 고채무빈곤국(HIPCs)인 국가로 확대 제안 : DCD/DAC(2007)12 및 DCD/DAC(2007)12/ANN1

- 고채무 빈곤국(HIPCs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은 현재 40 개국으로, 이중 31개국이 최빈개도국(LDC)이며, 최빈개도국이 아닌 고채무빈곤국(non-LDC HIPCs)은 볼리비아, 카메룬, 코트디브와르, 가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키르기스공화국, 니카라과, 콩고공화국 등 9개국임.

- 사무국은 전체 고채무빈곤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의미에서 LDC에 적용하던 언타잉 권고를 non-LDC HIPCs에 까지 확대하여 2008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따라 '2001년 LDCs에 대한 ODA 언타잉 권고'는 DCD/DAC(2007)12/ANN1의 'LDCs 및 HIPCs에 대한 ODA의 언타잉에 관한 DAC의 권고'로 개정

다. 주요 토의내용

- 회원국들은 2001 언타잉 권고의 이행에 관한

2007년 보고서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건설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언타잉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함.

- 특히 현지 조달시스템 활용에 대한 연구작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다만 독일 등 일부국가는 현재 파악되지 않은 LDCs에 대한 ODA의 약 36% 부분의 타이드 상황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2001년 언타잉 권고의 적용범위를 최빈개도국이 아닌 고채무빈곤국(HIPCs)으로 확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4개국이 본부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장표명을 유보하였으며, 여타국은 동 제안에 지지를 표명함.

5. DAC 동료검토 내용 가이드 :

DCD/DAC(2007)6/REV1 및 REV2

- 사무국은 지난 1.8 동료검토(peer review) 방법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료검토 내용이이드 수정안을 제시하고 특히 chapter 6에 포함될 특별이슈에 대해 필수 이슈로 능력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제시하고, 선택이슈로 ① 분쟁, 평화, 치안 및 취약국가, ② 가버넌스, 책임성 및 반부패를 제시함.

- 의장은 사무국 제안내용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2월말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으며, 사무국은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동료검토 내용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라 함.

활동내용 및 2007년도 작업계획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소개함.

6. 기타 사항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

- PARIS21 사무국측은 2006년도 PARIS21의